https://doi.org/10.5392/JKCA.2017.17.11.632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rents' Drinking Problem

김지선*, 권영란**
기독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Ji-Seon Kim(wjjs0214@ccn.ac.kr)*, Young-Ran Kweon(yrk@jnu.ac.kr)**

요약

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4학년 학생으로 총 281명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문제음주정도는 평균 3.70(±5.85)점이며, 사회적음주군(225명)은 평균 1.25(±1.71)점, 알코올남용군(29명)은 평균 8.59(±2.07)점, 알코올의존군(27명)은 18.85(±5.17)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돌봄의 태도 평균은 45.25(±6.49)점이었다. 알코올중독자의 간호실무에 참여 희망 유무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모의 문제음주가 심각할수록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부모의 문제음주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간호대학생은 환자간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음주문제 | 알코올중독 | 돌봄 | 태도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parents' drinking problem.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81 students in the second and fourth grade students in nursing departments of 4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by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Parents' problem drinking perceived by the subjects was 3.70(±5.85), 1.25(±1.71) in the social drinking group(n=225), 8.59(±2.07) in the alcohol abuse group(n=29), and alcohol dependence group (n=27) was 18.85 (± 5.17) points. The average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was 45.25 (± 6.49). The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participated in the nursing practice of alcoholics. The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negative as the parents' problem drinking was seve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whose parental drinking problems are serious in the future.

■ keyword : | Nursing Students | Drinking Problem | Alcoholics | Caring | Attitude |

접수일자 : 2017년 07월 14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08일
교신저자 : 권영란, e-mail : yrk@jnu.ac.kr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과다한 음주는 판단력의 저하를 나타나게 하며[1],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한다[2][3]. 특히 문제음주가 지속되는 경우 궁극적으로 알코올중독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음주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음주자 중 고위험 음주율은 2014년 12.7%이며, 이들의 41.6%는 10대 이하에서 음주가 시작되고 있다[4]. 특히 알코올중독은 게임중독·도박중독·인터넷 중독과 함께 4대 중독의 하나이며, 그 중 2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국내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로 '주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이며, 주취폭력과 같은 주취범죄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성인의 음주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5].

최근 들어 성인의 음주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심각성 역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학기마다 과음 및 폭음으로 인한 신입생 사망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대학 축제 기간만 되면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선행연구[6]에서는 대학생 중 93.0%가 음주자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 1-2회 폭음 하는 '수시 폭음자'는 23.0%이었으며, 주 3회 이상 폭음을 하는 '상습 폭음자'는 8.7%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63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7]에 의하면, 응답자의 71.2%가 '폭음자'이었으며, 이 중 '수시 폭음자'는 42.3%, '상습 폭음자'는 2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비교하면, 대학생 음주문제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부모의 음주정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또 다른 연구결과[9]에 따르면 부모의 음주문제가 있는 성인자녀(ACOA) 집단이 부모의 음주 문제가 없는 성인자녀(non-ACOA) 집단에 비해 폭음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가 심각할수록 성인자녀의의 음주문제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신간호 분야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중독'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알코올중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2011년 알코올전문병원 6곳을 지정하고, 2014년 알코올상담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바꾸어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중독문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알코올중독의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치료자의 신념과 태도는 치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10]. 따라서 향후 알코올중독자를 간호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와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부모의 음주정도는 자녀의 음주관련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0]. 선행연구[11]에 따르면,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의 자녀가 비음주 부모의 자녀보다 음주관련 태도 및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12]에서도 부모의 문제 음주는 자녀의 음주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모의 음주문제가 자녀의 음주관련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주어 음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허용적 태도는 본인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8].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및 중독자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로는 의 '간호대학생의 음주실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13]과 '간호대여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14], '간호대학생 알코올중독 환자간호 실습경험에 관한 연구'[15]로 단지 3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정도가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정신건강분야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로 성장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정도 및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부모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ffect size f=0.25(medium), 유의수준 α=.05, power 1-β=0.95, Number of groups=3으로 하였을 때, ANOVA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가 252명이었으며, Kim과 Lee[31]의 연구 및 Kim[32]의 연구에서 탈락자가 10.0-15.0%인 것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지각된 부모의 음주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사망한 학생은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하므로 최종 피험자 수를 300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첫째, 만 18세 이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종합대학 재학생, 둘째, G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및 4학년 학생이다.

정신간호학 실습 전·후의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의존환자 돌봄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정신간호학 실습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실습 이전인 2학년과 정신간호학 실습을 모두 마친 4학년으로 선정하여, 4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총 340부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은 300부였다. 통계 분석 시에는 부모가 사망한 학생 6명과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13부를 제외하여 총 281부를 최종분석에 포함했다.

3. 연구도구

1) 부모의 음주문제정도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 검사(CAST-K,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the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Jones[17]가 개발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안된 도구[16]를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총 30문항으로 '아니오' 0점, '예' 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음주문제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총점이 0-5점은 사회적음주군, 6-12점은 알코올남용군 13점 이상은 알코올의존군으로 분류한다. 도구의 신뢰도 값은 선행연구[16]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이었다.

2)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알코올중독자들을 간호할 때 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8],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한다[19] 본 연구에서는 Vargas[19]가 개발하여 수정한 EAFAAA(Escala de Atitudes Frente ao Alcool, ao Alcoolismo e à pessoa com transtornos relacionados ao uso do alcool) 영문판을 원저작자인 Vargas에게 E-mail로 도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번역 하여, 번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용을 검증받고, 검증받은 내용을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간호 대학생 10명에게 Pilot test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 정도와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관한 태도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Vargas[1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0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1041055-AB-N-01-2014-0024)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G시에 위치한 4개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의 협조를 받아 2014년 8월 8일~10월 2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절차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각 대학의 학과장 및 조교를 통해 설문조사 시간을 협조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기간, 연구의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 비밀보장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대상자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동의 후 언제든 동의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연구 설명서 1부를 제공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중에도 언제라도 동의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보고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작성 중 피험자의 질문에 연구자가 답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진행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15-2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암호화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정도 및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 및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종교, 경제상태, 정신간호학 실습 유무, 정신간호학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를 원하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1.99(±3.36)세였으며, 남자가 10.0%(28명), 여자가 90.0%(253명)으로 여대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 중 정신간호학 실습을 한 학생은 50.5%(142명)이었으며, 정신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29.2%(82명), 알코올중독자를 간호하는 정신간호영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는 45.2%(127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or n(%)
Age(yrs)	–	21.99±3.36
Gender	Male	28(10.0)
	Female	253(90.0)
Religion	yes	126(44.8)
	no	155(55.2)
Economical status	wealthy	4(1.4)
	ordinary	261(93.2)
	badly	16(5.7)
Practice in psychiatric nursing	yes	142(50.5)
	no	139(49.5)
Having interest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yes	82(29.2)
	no	199(70.8)
Intention of working for alcoholics	yes	127(45.2)
	no	154(54.8)

2. 대상자의 부모 음주문제정도 및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는 평균 3.70(±5.85)점이며, 사회

적음주군은 평균 1.25(±1.71)점, 알코올남용군은 평균 8.59(±2.07)점, 알코올의존군은 18.85(±5.17)점이었다. 또한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인식 태도는 평균 45.25(±6.49)점, 평균평점 2.81점으로 보통이하(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arents' Problem Drinking and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N=281)

Variables	M±SD
Parents' problem drinking	3.70±5.89
social drinker (n=225)	1.25±1.71
alcohol abuse (n=29)	8.59±2.07
alcohol dependency (n=27)	18.85±5.17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45.25±6.49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알코올중독 환자 간호를 원하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472,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자의 간호실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45.82±5.65	0.485	.628
	Female	45.19±6.58		
Religion	yes	44.94±7.53	-0.116	.908
	no	46.79±6.60		
Economical status	wealthy	47.00±2.31	0.806	.448
	ordinary	45.15±6.37		
	badly	45.27±6.49		
Practice in psychiatric nursing	yes	44.80±7.06	-1.189	.235
	no	45.72±5.83		
Having interest of psychiatric nursing	yes	44.89±6.60	-0.606	.545
	no	45.40±6.45		
Intention of working for alcoholics	yes	43.79±6.43	-3.472	.001
	no	46.45±6.30		

4.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

부모의 음주문제정도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부모의 음주수준에 따라 분석해보면, 부모가 사회적 음주군인 경우 평균 44.77(±6.24)점, 알코올남용군은 평균 46.48(±6.57)점, 알코올의존군은 47.96(±7.75)점으로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552, p=0.03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정인 Scheffe test 결과, 세 군간에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간호대학생들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Table 4. Attitude toward Caring for Alcoholics by Parents' Drinking Problem

(N=281)

Dependent Variable		M±SD	F	p
Parents' drinking problem *	social drinker [a]	44.77±6.24	3.552	.030
	alcohol abuse [b]	46.48±6.57		
	alcohol dependency [c]	47.96±7.75		

* Scheffe test: a<b<c

Ⅳ. 논의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이 점차 늘어가고, 음주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신보건 분야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부모음주문제 수준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는 80.1%(225명)가 사회적음주군이었으며, 알코올남용군(29명)과 알코올의존군(27명)으로 19.9%(56

명)는 문제음주군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를 파악한 선행연구[20]에서 24.7%가 문제음주군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어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를 파악한 연구[8]에서도 부모가 문제음주자라고 지각한 대학생은 약 24.7%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음주문제수준의 평균은 3.80(±6.20)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음주문제 평균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8][20].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이나 유사한 보건의료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알코올중독자의 간호실무에 참여 희망 유무가 해당되었다. 즉 알코올중독자의 간호실무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정신간호학 실습 여부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Kim과 Eom[21]의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 교육정도에 따른 자아 상태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간호 교육 정도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은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학 실습 장소와 내용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정신간호 교육이 일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습 이후에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gas[2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의대생이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접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중 정신간호학 실습을 마무리한 4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실습 중에 알코올중독자를 대면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정신간호학 실습장소가 알코올중독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중독관리센터나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신과 입원실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해독이 필요한 알코올중독자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습과정동안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독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정신보건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4년의 재학기간 중 알코올중독에 대해 전혀 접하지 못하거나 알코올중독에 대해 접하긴 했지만 그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간호교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신간호학 교육 및 실습과정에서 중독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음주관련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Vargas[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코올중독에 대한 인식은 알코올중독자들을 간호할 때 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음주문제정도가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이다[23].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24]. 실제 심각한 음주문제를 지닌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아동들은 애착관계 수준이 낮으며[25],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로 인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며 성장한다[26]. 또한 알코올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와 비행, 공격성과 같은 행동 문제를 나타낸다[27-29].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음주문제는 가족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9]. 나아가 선행연구[8]에서도 부모가 문제음주자인 경우, 대학생 자녀는 우울, 공

항, 걱정, 신체화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인터넷중독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선행연구[30]에서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에게 자녀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해주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문제음주군의 부모를 둔 간호대학생에게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필요 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중독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알코올중독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독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신 보건 분야 중 중독질환 예방・치료・재활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알코올중독자의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에 따른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의 음주문제정도는 평균 3.70(±5.85)점이며, 사회적음주군(225명)은 평균 1.25(±1.71)점, 알코올남용군(29명)은 평균 8.59(±2.07)점, 알코올의존군(27명)은 18.85(±5.17)점이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돌봄의 태도 평균은 45.25(±6.49)점이었다. 셋째, 알코올중독자의 간호실무에 참여 희망 유무에 따라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넷째,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 돌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4개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2학년 및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체 간호학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돌봄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VI.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Y. Kim, “The Influence of Stress on Alcohol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and Problem Gambling: Spiritual Well-Being As Mediator,” Korean J. of Counseling, Vol.14, No.1, pp.97-114, 2013.

[2] M. Kim, “A Study of Parents’ Alcohol Use, University Students’ Alcohol Expectancy, and Alcohol Use Disorder: Mediating Effect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J.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0, No.3, pp.61-80, 2012.

[3] S. Choi, “A Study on Relapse Prevention Strategies of Alcoholics in Korean Society,” J. of Korean Studies Institute, Vol.48, pp.307-348, 2016.

[4] J. Geong, S. Yoon, S. Chae, and J. Choi, "Current Status of Alcohol and Drug Addiction and Policy Responses," Korean Institud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24, No.1, pp.90-97, 2014.

[5] M. Yoon, "The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tal Direction of Korean Addiction

Service Delivery System," J. of Korean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5, pp.234-266, 2010.

[6] S. Chung, "The Influence of Korean Drinking Culture and Perceived Attitude Toward Alcohol on Risky Drink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7, No.2, pp.1-16, 2006.

[7] J. Jekarl, "Drinking Status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Seoul, 2011.

[8] E. Lee and E. Bong, "Impact of Parents' Problem Drinking on the Problematic Drinking of Their Collegiate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Alcohol Outcome Expectancy and Depression," J.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0, No.3, pp.392-401, 2014.

[9] J. Yoo and H. Chung, "The Effect of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Family Function o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Internal Protective Factors," Korean J. of Counseling, Vol.16, No.4, pp.415-433, 2015.

[10] A. Jeanne, *Building Basic Therapeutic Skills: A Practical Guide for Current Mental Health Practice*, C. D. Kim Translator, Seoul: Hakjisa, 2006.

[11] N. Kim and M. Kwon, "Comparis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s Alcohol Consumption," J.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Vol.15, No.2, pp.206-215, 2011.

[12] J. Myung, M. Song, and C. Kim, "A Study on Drinking-Motivation of Adolescents in Relation with Family Fun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Drinking of Parents," Korean J. of Youth Studies, Vol.18, No.8, pp.291-308, 2011.

[13] H. Park, M. Cho, G. Cho, and D. Kim, "A Comparison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between Two Groups of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110-119, 2011.

[14] G. Park and S. Choi, "Drinking Related, Attitude and Drinking Behavior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3, No.1, pp.23-32, 2012.

[15] M. An, Y. Hwang, and M. Chu,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 on Alcoholism Care," The J.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3, pp.362-371, 2014.

[16] M. Kim, H. Chang, and K. Kim,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li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J.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4, No.4, pp.1182-1193, 1995.

[17] J. Jones,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 Chicago, Family Recovery Press, 1981.

[18] D. Vargas, "Reduced Vers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Alcohol, Alcoholism, and Alcoholics Primary Results," Revista da Escola de Enfermagem da USP, Vol.45, No.4, pp.918-925, 2011.

[19] D. Vargas,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Alcohol, Alcoholism and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s," Archives of Clinical Psychiatry, Vol.41, No.4, pp.106-111, 2014.

[20] M. Hyun, H. Kang, and H. Kim, "Parents'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Their University Student Offspring,"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0, No.4,

pp.355-364, 2011.

[21] H. Kim and M. Eom,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Ego State according to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4, No.3, pp.276-284, 2005.

[22] D. Vargas, "Nurses' Personal Knowledge and Their Attitudes toward Alcoholism Issues," J.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4, No.2, pp.123-131, 2014.

[23] H. Shin, "Influencing Factors of Quality of Life, Self-Esteem of Higher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J.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B, pp.485-499, 2015.

[24] M. Skeer, M. McCormick, S. Normand, S. Buka, and S. Gilman, "A Prospective Study of Familial Conflict,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Development of Substance Use Disorders in Adolescenc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Vol.104, No.1, pp.65-72, 2009.

[25] H. Kim and S. Park,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s Concer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ole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s of Alcoholics," J.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9, No.4, pp.37-50, 2001.

[26] N. Chung and H. Park, *Alcoholism. Seoul*, Hakjisa Publisher, pp.64-67, 2000.

[27] A. Loukas, R. Zucker, H. Fitzgerald, and J. Krull,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among Sons of Alcoholics: Effects of Parental Psychopathology, Family Conflict, and Child under Control," J. of Abnormal Psychology, Vol.112, No.1, pp.119-131, 2013.

[28] I. Obot and J. Anthony, "Mental Health Problems in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 Dependent Parents: Epidemiologic Research with A Nationally-Representative Sample," J. of Child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Vol.13, No.4, pp.83-96, 2004.

[29] M. Kelley and W. Fals-Stewart, "Psychiatric Disorders of Children Living with Drug-Abusing, Alcohol-Abusing, and Non-Substance-Abusing Fathers," J.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43, No.5, pp.621-628, 2004.

[30] V. Rajesh, P. Diamond, M. Spitz, and A. Wilkinson, "Smoking Initiation among Mexican Heritage Youth and The Roles of Family Cohesion and Conflict," J. of Adolescent Health, Vol.57, No.1, pp.24-30, 2015.

저 자 소 개

김 지 선(Ji-Seon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2017년 2월 ~ 현재 : 기독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정신건강간호,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간호

권 영 란(Young-Ran Kweon) 정회원

- 200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4년 ~ 2015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간호, 중독 치료 및 재활간호